칼뱅에게 있어서 여성 지도력과 아디아포라*

이 필은 | 나사렛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전임강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정하신 것을 따르지 않는 모두 것이 나쁘다고 하셨다. 특별히 사치와 관련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제와 절약을 요구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욕정이 우리를 자유롭게 다스리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며, 도리어 항상 검소하고 절제된 옷을 입어야만 할 것이다. 수많은 옷을 소유할 수 있는 부자들이 화려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주신 것을 사용한다기보다는 남용하는 것임을 알아야한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소유를 유익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처럼 선하고 도움이 되도록 소유를 사용해야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음성을 주셨지만, 이것을 통해서 더러운 노래를 부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철을 주셨지만, 우리가 서로를 죽이는데 사용하는 칼을 만들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 이것은

* 본 연구는 2009년도 나사렛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똑같이 옷에도 적용이 된다....우리가 육체를 꾸미는데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동안 우리는 영혼을 진리로 장식하는데 관심이 없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우리는 선한 행동을 위해서 옷에 지나친 장식을 하는 것을 금해야만 한다.

1. 들어가는 말

위의 설교는 1561년 나바르의 마거리트(Marguerite de Navarre)에게 보낸 당테레(Dentiere)의 편지를 출판 할 때 삽입한 칼뱅의 서문이다. 본 연구는 이 서문을 삽입한 칼뱅의 의도를 통해서 여성지도력에 대한 칼뱅의 입장을 재고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당테레는 당시 급진적인 종교개혁가들 조차도 비판한 여성설교가라는 점에서 매우 이외의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칼뱅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여성과 남성의 영적인 동등함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남성에 대한 여성의 복종을 강조하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한다는데 동의한다. 즉 여성과 남성은 영적인 측면에서 동등하지만 동시에 창조의 질서에 기초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해야 하고 여성은 교회에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만인제사장을 외치면서 남성과 여성이 영적으로 동등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교리에서 당연하게 귀결되는 결론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16세기라는 여전히 남성우월적인 사회 분위기를 극복해야하는 과제를 지니게 되었다. 그러한 측면은 현대라는 시점에서 볼 때 자연스럽게 종교개혁자들이 여성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는 신학적 견해를 지닌 듯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칼뱅은 여성의 평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여성의 복종과 침묵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칼뱅의 입장이 개신교회의 여성 지위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1] 종

1) 칼뱅이 여성 지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시도되었다. Maurice Oudot de Dainville, "Le consistrire de Ganges a la fin du XVIe siecle," in *Revue d'*

교개혁가로서 칼뱅이 결혼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설명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칼뱅이 남편과 아내를 동반자라 주장하는 것은 그의 성경 주석이나 그의 아내를 그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동반자로 묘사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2] 그리고 동시에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해야할 것을 주장하는 상충된 측면을 보이는데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제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칼뱅의 입장을 단순하게 신학적인 일관성의 결여로 취급하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공정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여성에 대한 칼뱅의 입장은 종교개혁자로서의 신학적인 확신과 그가 속한 제네바라는 도시의 보수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종교개혁자들과 인문주의 학자들은 설교나 글을 통해서 여성들의 교육을 옹호하지만 당시의 자신들의 지지 세력이었던 신흥부르주아 계층의 보수성이 여성의 공적인 삶을 지양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불평등성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였다는 주장이 지배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3] 결과적으로 여성은 중세에 수녀원을 기반으로 활동하던 대외적인 활동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여성들을 가정이라는 범주로 한계를 지운 사적인 영역으로 좁혀졌다는 것이다.

---

historie de l'Eglise de France 18 (1932); Robert M. Kingdon, "The Control of Morals in Calvin's Geneva," in L.P. Buck and J.W.Zophy eds, *The Social History of the Reformation*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72); Janine Garrison-Estebe and B. Vogler, "La genese d'une societe protestante: Etude comparee de quelques registres consistoriaux languedociens et palatins vers 1600," *Annales: Economies, Societes, Civilizations* 31 (1976); Heinz Schilling, "Calvinism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Mind: Ecclesiastical Discipline of Public and Private Sin from the Sixteenth to the Nineteenth Century," in *Civic Calvinism in Northwestern Germany the Netherlands* (Kirksville, MO: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91).

2) Calvin to Viret, 7 April 1549(CO 13.230); ET in Bonnet, Letters, 2.216. 칼뱅은 남편과 아내가 집안일을 서로 나누어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칼뱅은 아기를 낳아서 기를 때에도 아내와 남편이 함께 서로 책임을 지는 것이 창조의 원리임을 밝히고 있다. Bieler, *L'homme et la femme* (Geneva: Labor et Fides, 1963), 36~39, 99.

3) Lyndal Roper는 16세기 Augsburg를 분석하면서 개신교가 신흥부호들의 보수성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히 개신교 목사들은 설교와 교육을 통해서 여성이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야 함을 강조하면서 여성들의 대외적인 활동을 금지하고 가정이라는 영역으로 국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본다. Lyndal Roper, *The Holy Household: Women and Morals in Reformation Augsburg* (Oxford: Clarendon Press, 1989).

이러한 학자들의 입장은 설득력을 지니지만 위에서 제시한 편지의 서문은 칼뱅의 여성 지도력에 대한 입장을 재고할 여지를 남겨놓는다. 당시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여성의 대외적인 활동으로서 설교권을 부정하였으며 칼뱅도 동일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칼뱅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렇듯 여성설교가인 당테레를 지지하는 의미로 그녀의 책에 서문을 삽입하고 있다. 그리고 칼뱅은 이를 아디아포라(adiaphora)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성 지도력과 관련하여 칼뱅이 사용한 아디아포라라는 개념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칼뱅에게 있어서 이 개념은 이상적인 개념으로만 존재한다는 결론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이렇듯 칼뱅의 입장을 일축하기보다는 1559년 이후에 이 개념의 실제적인 모형을 당테레와 같은 16세기 인물에서 찾는다는데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칼뱅이 인생후반부에 이러한 모형을 당시의 인물에게서 찾은 의도는 무엇일까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시도하면서 아디아포라 개념이 칼뱅에게는 이념적으로만 존재한 것이 아니었음을 밝히는데 있다. 그리고 칼뱅이 사용한 아디아포라의 개념에 대한 기존의 학자들의 해석을 새롭게 고찰해 봄으로써 칼뱅에게 있어서 여성 지도력에 대한 공헌과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칼뱅의 여성지도력 이해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여성지도력에 대한 칼뱅의 모호한 입장-상호 동력자로서의 위치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여성의 복종을 강조하는-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데, 이를 몇 개의 범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선행연구로서 본 연구의 중요성을 부각시켜준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성 있다.

첫 번째 범주로는 여성지도력에 대한 칼뱅의 관점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이러한 입장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입장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인 리타 만차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위를 강조하는 칼뱅의 입장은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Mancha, 1979, 80).

비엘러는 같은 입장에서 여성에 대한 칼뱅의 입장을 "근본적인 평등"과 여성의 "기능적인 순종"으로 설명하고 있다. "남성에 대한 여성의 순종은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근본적인 평등을 파기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Bieler, *L' homme et la femme*, 36). 같은 입장으로 왈라스(Wallace)는 칼뱅에게 있어서 이러한 두 개의 상충되는 입장은 "상호적인 의사소통과 창조의 질서 안에서 복종의 관계"로 이해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연속성을 지닌다고 설명하고 있다(Wallace, 1959, 148~69).

많은 학자들이 속한 두 번째 범주로, 여성에 대한 칼뱅의 입장은 일관성을 지니지 못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범주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학자인 브래스델은 칼뱅을 기회주의자로 간주한다. 즉, 칼뱅의 입장이 모호한 것을 상황에 따라 그의 입장이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한다(Blaisdell, 1982). 이러한 입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는데, 특별히 칼뱅이 당테레에게 취한 입장이나 존 낙스와 함께 메리여왕의 여성지도력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취하다가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지도력에 대해서는 극찬을 하는 것 등은 이러한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결혼 전에는 여성에 대해서 매우 냉소적인 입장을 취하였으나 아내가 죽은 후에 동반자로서 여성의 지위를 존중하는 것 등은 칼뱅의 입장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주장들을 지지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에 대한 칼뱅의 태도 변화는 1559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고, 여성 지도력에 대해서 그가 제시했던 아디아포라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단순하게 그를 기회주의자로 평가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를 남겨놓는다.

세 번째 그룹의 대표적인 학자인 데보에는 여성에 대한 칼뱅의 입장은 실천적 차원에서 상황에 접하게 되면서 변화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DeBoer, 1976).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칼뱅의 입장은 일관성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인 차원에서 해석의 개방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은 두 번째 범주의 학자들보다는 칼뱅에게 우호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칼뱅의 입장이 일관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네 번째 그룹은 더글러스가 대표적인 학자로 여성에 대한 칼뱅의 입장은 사회와 교회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여성

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평등을 주장하기에는 16세기의 상황이 완숙된 적정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칼뱅의 의식에서 나왔다고 보는 입장이다. 더글러스는 칼뱅의 입장이 일관성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당시의 시대 안에서 일관성을 지니지 못하게 하는 성숙되지 못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Douglass, 1984). 이러한 입장도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지만, 여전히 칼뱅의 입장이 일관성을 결여하였다는데 동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여성에 대한 칼뱅의 입장이 영적인 평등함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남성에 대한 여성의 복종을 주장하는 상충된 측면을 해석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입장 가운데 칼뱅이 다루고 있는 교회에서의 여성 지도력에 대한 측면이다. 그는 교회에서 여성이 침묵을 지키고 베일을 쓸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위급한 상황에서 여성의 지도력을 인정하는 입장에 대한 연구이다. 그는 여성 지도력을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용한 용어인 아디아포라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이후에 살펴보겠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를 단순하게 칼뱅의 신학적인 전제로 취급하고 있다(Thompson, 1988, 125~43).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입장과는 달리 칼뱅은 인생 후반에 예외적인 여성 지도력에 대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에게서 찾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특별히 이는 그와 당테레와 엘리자베스 여왕과의 관계를 통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3. 당테레(Marie Dentiere)와 칼뱅의 관계

당테레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수녀였으나 결혼을 하고 1520년에 제네바로 옮겨와서 활동하였던 설교가의 한 사람이다(Thompson. 1992, 41). 비록 그녀가 퀘렐(*querelle*)[4]의 작가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1539년에 여성이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성경에 대해서 진

4) *querelle des femmes* 이란 여성의 우월함이나 열등함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논쟁한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논쟁은 Christine de Pisan's *The Book of the City of Ladies*에 영향을 받은 것

실을 말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을 강조하는 글을 썼다. 그리고 마거리트여왕에게 프랑스에서 칼뱅의 신학적 입장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휴거노트(*huguenot*)를 구해줄 것을 간청하는 편지를 썼다. 1561년 프랑스에서 휴거노트들에 대한 폭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편지가 출판되고, 이 편지의 서문으로 칼뱅의 설교가 포함되었다.[5] 이에 대해서 더글러스는 칼뱅과 당테레가 서로 영향을 주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 칼뱅은 명확히 그가 제네바에 도착하기 전에 설교를 하고 있는 여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며, 그들의 은사를 존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성들에게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당시의 조직화된 회중들에게 적절한 충고였으나 동시에 초기 개신교들이 여성들에게 그들의 사적인 모임에서 설교를 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표현의 한 방식일 것이다. 칼뱅이 비록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여성이 대중들 앞에서 활동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경험을 하였을 것이고 확신을 가지고 제네바에서 여성의 순종을 강조하는 일반적인 규칙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놓았다(Douglass, 1985, 104f).

더글러스의 주장처럼 칼뱅은 제네바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그녀의 명성을 통해서 당테레와 접촉할 기회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더글러스의 주장처럼 칼뱅이 당테레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성들이 대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숙지하였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는 더글러스의 주장은 설득력을 지닌다. 물론 칼뱅이 당테레의 작품 「변호」(*Defense*)를 읽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 책이 1540년과 1542년 사이에 1500부가 인쇄되었다

으로 여성의 변호를 위한 수사학적인 표현들로 구성된 책들을 의미한다. Joan Kelly, "Early Feminist Theory and the Querelle des Femmes, 1400~1789," *Signs* 8 (1982) 참조.

5) Dentiere, *Espistre tres vtile faict & composee par vne femme Chrestienne de Tornay, Envoyee al la Royne de Nauarre seur du Roy de France*. 이 책의 전문이 전해오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Marguerite에게 보낸 편지는 Herminjar (*Correspondance*, 5.295~304)에서 발견되었다.

는 것을 감안한다면, 칼뱅이 이 책을 읽지 않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겠다(Head, 1987, 265). 그리고 당테레는 프랑스에서 개신교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편지를 보내게 된다. 내용가운데 여성의 지도력을 강조하는 부분이 포함된 마거리트에게 보내는 편지가 출판되는 시점인 1561년에 이 작품의 서문에 칼뱅은 자신의 설교를 첨가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를 통해서 칼뱅이 이미 언급하였던 여성의 지도력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는 그의 신학적 입장을 지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별히 이 편지에서 당테레는 여성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표현하고 있다. "비록 우리가 모임이나 공공장소인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서로서로 글로서 충고하라는 것을 금하지는 않았다 …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여성이 성경을 읽거나 듣지 말아야한다고 하는 주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6] 계속해서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몇 명의 선한 여성들에게 성스러운 성경을 통해서 신령하고 좋은 것을 계시해준다면, 그래서 진리를 손상하고 여성들이 기록하는 것을 방해하고 말하는 것을 막고 서로서로 선포하는 것을 막는 자들 때문에 설교를 하지 말아야만 하는가?"[7]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의 서문에 칼뱅이 자신의 설교를 함께 출판하도록 한 것은 그에게 있어서 일종의 태도 변화로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 당시 그녀가 공공장소에서 설교하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며, 특별히 칼뱅은 1546년 그의 친구 파레(Farel)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당테레를 만났을 때 자신의 느낌을 조롱하듯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당신에게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려고 합니다. 프로망(Froment)의 아내가 거리 끝에 있는

---

6) "Et combien que nous soit permiz de prescher es assemblees et eglises bulbiques, ce neantmoins n'est pas deffendu d'escrire et admonester l'une 1'aultre...Lequel jusques a present a este tant cache, qu'on n'osoit dir mot, et sembloit que les femmes ne deussent ridu lire n'entendre es sainctes lettres." Dantiere, *Epistre tres vtile* (Herminjard, corredspondance 5.297f).

7) "Si Dieu doncques a faict graces a aulcunes bonnes femmes, leur revelant par ses sainctes escriptures quelque chose sainct et bonne, ne l'oseront-elles escrire, dire, ou declairer les unes aux aultres, pur les calumniateurs de verite?" Dentiere, *Defense* (in Rilliet, pp. 380).

여인숙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긴 옷에 대항하는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녀가 그것이 내게 대한 것임을 알아차리고는 그녀 자신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웃었지요. 그리고 우리는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고 당신은 거짓선지자들을 그들의 긴 옷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잘못 가르치셨다고 말하였지요." (Calvin, *Letters of John Calvin*, 2:27~71). 여기서 칼뱅은 농담으로 편지를 시작하면서 당테레를 비양하는 어투로 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데비스는 "최상의 여인"은 항상 남성들의 재밋거리의 목표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Davis, 1975, 124~51). 그러나 1539년에 쓰인 당테레의 편지가 1561년에 출판하면서 칼뱅이 서문을 넣은 이유는 무엇일까? 1546년에 당테레와의 만남에 대해서 비양조였던 칼뱅이 17년이 지난 후에 당테레의 편지에 자신의 설교를 삽입한 것은 17년 동안에 칼뱅과 당테레와의 사이에서 화해의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져오게 한다.

당시의 시대적인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프랑스에서 개신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면서[8]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한 칼뱅이 자신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프랑스 가톨릭교회를 향해서 여성의 화장, 지나친 장식이나 의상 등 사치를 금하는 내용의 설교를 끼어 넣었을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프랑스의 국왕과 가족관계에 있는 마그리트 앞으로 보낸 당테레의 편지에 자신의 신학 사상을 따르는 프랑스인을 염려하여 서문에 자신의 설교를 삽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프랑스의 상황이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임을 인식한 칼뱅이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당테레에 의해서 정리된 신학적인 내용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휴거노트에게 이러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함일 수도 있다는 상황은 쉽게 이해가 된다. 즉 이 편지가 출판되는 시점에 1561년은 프랑스에게 칼뱅의 입장을 따르는 휴거노트들에게 매우 불안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

8) 1557년에서 1562년 사이에는 프랑스는 Huguenot들에 대한 종교적인 학대가 심각해지기 시작하였다. 1557년 9월 4일 400명 정도의 Huguenot들이 Saint-Jacques 거리에 있는 가정에 모여서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를 알아차린 가톨릭 파리 시민들은 이들을 잡아서 처단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큰 모임이 아니라 소모임으로 huguenot들을 모이게 하였고, 이것이 1971년 8월의 Saint Bartholomew'의 대학살로 연결되었다. Babara B. Diefendorf, *Beneath the Cros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참조.

이다. 그리고 칼뱅은 검소함과 관련된 설교를 여성만이 아니라 1558년 10월에 안수 의식에서 비용을 절감할 것을 골자로 하는 글을 유포하였다(Hunt, 1996). 사치를 금하는 칼뱅의 주장은 파리에서보다 제네바에서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그리고 당테레의 편지의 서문에서 칼뱅은 사제의 안수식에서의 검소함을 여성의 검소함이라는 주제로 변형하여 설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칼뱅은 공공의 장소에서 여성이 침묵을 지켜야 한다거나 또는 여성이 남성보다 창조의 질서에서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내용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서문의 주요 내용은 여성들의 화장이나 지나친 장식에 대하여 금하는 내용의 설교였다. 다시 설명하면 편지의 서문에서 칼뱅은 이미 사제나 목사 안수 의식에서 검소함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사치를 피하고 검소함을 강조하는 설교가 반드시 여성에게만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이처럼 당테레의 편지의 서문에 자신의 설교를 삽입한 칼뱅의 입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겠으나, 여성에 대한 칼뱅의 기존 해석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의 지평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칼뱅은 여성의 지도력을 구원을 위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교회의 정치적인 측면이 부각된 아디아포라라는 입장으로 설명하였고, 위급한 상황에서 기존의 사회적인 규범을 넘어설 수 있음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칼뱅이 사용하고 있는 아디아포라라는 개념과 여성

칼뱅은 아디아포라라는 단어를 여성지도력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다(Comm. 1 Cor. 14:35 (CO49.533). 이 단어는 스토아 철학자들에 의해서 삶을 위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도덕적인 문제에서 벗어난 것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9] 스트리트에 따르면 이 단어가 교부들의 사용을 거치면서 의

9) Thomas Watson Street은 16세기에 이 단어가 지니는 의미들을 칼뱅과 관련하여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John Calvin on Adiaphora: An Exposition and Appraisal of His Theory and Practice" Ph.D. 학위 논문. Union Theological Seminary, New York, 1954).

미가 기독교적인 입장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점차적으로 강조점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세상의 현명한 사람들의 삶을 위한 비본질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의미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Street, 1954, 27). 보엔에 따르면 칼뱅은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교리, 구원을 위해서 본질적이지는 않으나 중요한 것, 그리고 성경에 명령이나 금기 사항으로 언급되지 않은 규범들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보엔은 세 번째 범주를 아디오포라 개념으로서 '무관한' 이라는 범주로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제복을 입는 것은 이 범주에 속하게 된다. 그러나 성례의 경우는 구원을 위해서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디아포라라고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본질적인 차원과 아디오포라 사이에 중간적 차원으로 볼 수 있다(Bowen, 1985, 148). 보엔이 본질적인 것과 아디아포라 사이에 중요한 것의 범주를 넣은 것을 높이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범주를 나누고 있는 것은 칼뱅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보엔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칼뱅은 본질적인 것과 아디아포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만 그 중간으로서의 중요한 범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설명하면 칼뱅에게 있어서 아디아포라라는 개념은 쉽게 변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되는 중요한 범주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적합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여성지도력은 창조의 질서에 관계한 중요하고 쉽게 변화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시급한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보엔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여성이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것과 베일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칼뱅은 아디오포라라는 단어를 적용하고 있다. 동시에 칼뱅은 고린도전서 14:34의 주석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지위는 감독을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복종을 해야 하는 존재에게는 해당될 수 없다. 진실로 교회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에게 연결되어있는 여성이 모든 교회의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가르치는 지위를 가진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Calvin, *Commentary on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467~469). 여성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위치는 한 남성에게 복종해야하는 위치와 상충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은 칼뱅에게

있어서 개별성보다는 보편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절에서 칼뱅은 여성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리고 남편이 이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할 경우 물어서 알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아디아포라라는 범주로 설명하고 있다(1 *Cor* 14:35). 같은 문제에 대해서 칼뱅은 「기독교강요」 4.10.31에서 여성이 침묵을 깨고 큰 음성을 내어야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지시하고 있다. 여기서 칼뱅은 종교, 인류를 위한 것, 정숙의 규율과 같은 풍습을 예외적인 영역으로 시급한 상황에서 여성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교회의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서, 이를 아디아포라라고 언급하고 있다.

> 자유 인식을 통해서 확정된 교회의 의식을 지키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의 의무이다 … 우리를 묶는 고정된 영원한 법률이란 없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을 위한 외적인 원리는 존재한다. 비록 우리 모두가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지라도 우리 모두는 이를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상호 서로에게 묶여있으며 서로 서로에게 상호적인 사랑으로 먹이기 때문이다(*Institute* 4.10.31).

여성이 베일을 쓰는 문제와 침묵해야하는 것은 외적인 원리로서 여성의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본질적인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설명하면 여성이 베일을 쓰거나 침묵을 지키는 것은 인간들의 상호 자유의지를 통해서 화합을 위해서 도출된 상호 동의하는 원리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칼뱅은 자신의 작품 어느 곳에서도 여성의 복종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칼뱅은 상황이 시급한 경우에 여성이 교역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고 있다. 예를 들면 능력을 갖춘 남성이 없을 경우 아직 조직화되지 않은 교회에서 여성은 공공의 장소에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영원한 것은 아니며 일시적인 것임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Calvin, *Comm.* 1 Cor. 14:34). 여기서 보엔이 아디아포라를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해석한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

임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분명하게 칼뱅은 이 개념을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정의하기보다는 상호 동의하는 외적인 중요한 원리로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칼뱅에게 있어서 여성의 침묵은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문화적인 다양성으로 쉽게 변화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칼뱅은 여성의 침묵을 보편성과 지역적인 다양성을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바울의 명령처럼 여성의 침묵은 보편성을 지니지만, 위급한 상황이라는 특수성이 적용되는 지역적인 다양성을 동시에 인정한다는 것이다. 다시 설명하면 여성의 침묵은 아디아포라로, 이는 쉽게 문화적인 다양성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디아포라라는 용어는 항상 존중되어 지켜야만 하는 보편성을 지니지만 위급한 상황이라는 예외를 통해서 교회의 협력의 과정을 거쳐서 규율의 예외를 인정하는 범주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칼뱅은 스스로 아디아포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바울은)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각의 나라와 세대들의 풍습을 다양하게 수용해야만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요구되는) 새로운 것을 정착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실천된 것을 변화시키거나 폐기할 수 있다" (*Institutes* 4.10.30). 여기서 주위를 기울여야 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전제가 그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칼뱅의 이러한 해석의 기본적 입장은 구원의 교리를 침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가르침을 상대적인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칼뱅은 남성에 대한 여성의 복종을 "천국에서 사라지게 될 세상적인 것의 한 부분" (Serm. 1 Cor. 11:4~10 (CO 49.728)이라 설명하고 있다. 계속해서 칼뱅은 비록 예외적으로 베일을 쓰는 문제나 특별한 경우에 여성 지도자들이 남성을 가르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이야기 하지만, 이러한 것이 '자연의 질서' 나 '세상적인 법' 을 파괴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모든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하도록 태어났기 때문이다" (윗글).

칼뱅은 다음과 같이 설교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지켜야 하는 파괴할 수 없는 법을 만들어놓으셨다. 남성이 여성의

머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규칙을 따라야하고 그것이 크던 작던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을 지키도록 권고해야한다"(Serm. 1 Tim. 2:13~15 (CO 53.224). 칼뱅에게 있어서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해야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이며 이를 인간이 쉽게 파기할 수 없음을 말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는 위급한 상황에서만 예외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5. 16세기 여성지도자들과 칼뱅의 아디아포라

어떻게 칼뱅이 아디아포라를 통해서 보편성을 지닌 규범과 실제적인 여성지도력의 관계를 다루었을까?[10] 여성지도력과 관련된 이러한 두 개의 요소는 칼뱅에게 있어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과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칼뱅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세기라는 상황 안에서 여성지도자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서 더글러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칼뱅은 여성의 복종이라는 일반적인 규칙에 대해서 예외라는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이는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가능케 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Douglass, 1985, 104. 121). 선행연구에 대한 간략한 언급을 통해서 아디아포라는 개념이 칼뱅에게 있어서는 현실성이 없는 이상적인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칼뱅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공정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칼뱅의 입장은 당시의 상황 안에서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칼뱅은 아디아포라라는 개념을 통해서 구체적인 복종의 표현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예외적인 경우에 이러한 보편의 규칙을 파기하실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규칙을 깨거나 우리로 하여

10) 칼뱅이 여성에게 취한 이중적 입중은 단순하게 여성 지도력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Mary Potter는 칼뱅에게서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cognitio dei와 cognitio hominis라는 이중적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Marry Potter, "Gender Equality and Gender Hierarchy in Calvin's Theology," *The Journal of Christian Reconstruction* (Winter 1979/80) 92.

금 새로운 규칙을 만들도록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의 교리라는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여성의 복종의 문제는 상대적인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칼뱅에게 있어서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규율은 현재의 인간관계에서는 존재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칼뱅은 고린도전서 11:4~10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인간과 하나님의 근원적인 관계 안에서 모든 구성원은 동일하며 사회적인 또는 성에 따른 차등이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11] 그리고 칼뱅에게 있어서 아디아포라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특징은 1559년 이후 칼뱅이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여성지도력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를 16세기 안에서 찾아냄으로써 드러나게 된다.

1561년에 당테레의 편지에 서문을 삽입하기 전에 1559년에 칼뱅이 세실(Cecil)에게 보낸 편지에서 칼뱅이 직위 1년이 된 엘리자베스 여왕의 지도력에 대해서 매우 극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Calvin to Cecil (May 1559; CO 17.490~92, #3036).[12] 칼뱅은 여성지도자들이 나라의 통치자로서 혈통을 이어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여왕을 "교회의 돌보는 어머니"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그녀를 다른 사적인 여성들과 구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칼뱅이 불링거(Bullinger)에게 1554년에 보낸 편지에서는 입장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다. 그는 편지에

---

11) "짧게 말해서 여성이나 남성이 더 이상존재하지 않거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음이 없는 조건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게 입양된 것이며 복음의 자유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그의 약속을 배우게 되며, 우리의 혈통이 하늘나라에게 갈 준비가 되어있음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12) William Cecil은 영국의 종교개혁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 즉위하면서 칼뱅은 세실에게 두 번의 편지를 보내게 된다. 첫 번째 서신에서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즉위는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편지에게는 이를 더 구체화 하는 내용의 편지이다. 여기서 이러한 화해의 편지를 쓴 것은 당시 칼뱅의 동료였던 John Knox가 1558년에 여성의 통치를 비난했던 것에 대해서 세실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심적으로 불편해한 것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고 그에 대한 답장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입장을 변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존 녹스의 논문 "The first blast of the trumpet against the monstrous regiment of women"으로 인해서 입장이 난처해진 칼뱅이 이 글이 자신과 관계가 없음을 밝히기 위해서 해명의 편지를 썼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Letter of John Calvin: Selected from the Bonnet Edition with an introductory biographical sketch*, 206~208.

서 "여인을 통한 정치는 …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치로 전복 될 때까지 계속해서 존재하게 될 폭력과 같은 것"이라고 기록하였다(Calvin to Bullinger 3 May 1554:CO 15.125, #1947). 칼뱅이 1554년에 쓴 편지에서는 여성지도력을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1559년 이후에는 이러한 여성 지도력에 대해서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칼뱅은 자신의 고향인 프랑스에서 종교개혁 사상이 위급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당시 이념적으로 설명하였던 여성지도력에 대한 아디아포라의 모형을 16세기라는 현실에서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16세기라는 상황에서 종교개혁정신을 지닌 위대한 여성지도자들이 존재한 것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당테레와 엘리자베스는 당시 종교개혁 사상을 지닌 대표적인 여성지도자였다. 그리고 당시 종교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활동했던 여성 설교가로는 레베(Claudine Levet)와 캐서린 젤(Katherine Zell) 등을 더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칼뱅은 여성의 침묵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러한 여성들의 활동에 대해서 숙지하였을 것이고 여성들에 대한 지도력을 고린도전서 14:34절을 주석하면서 위급한 상황에서의 사역이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1536년 판 「기독교강요」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한번 다루지만 1546년판에서는 이 개념을 두 문장으로 늘리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더욱이 1561년에 당테레가 죽던 해에 출판된 그녀의 편지에 자신의 설교를 서문에 올린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당테레의 편지에 서문을 쓴 것은 프랑스에서 후거너트들에 대한 위급한 상황이 급물살을 타는 것과 자신의 탄생지인 프랑스에 대한 칼뱅의 특별한 애정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브래스델(Blaisedell)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칼뱅이 마가리트[13], 장 달베르트(Jeanne d' Albert)와 프랑스의 르네(Renee de France)[14]와 같은 귀족 여성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신

13) 칼뱅과 Marguerite의 자료로는 1530년에서 1540년 사이에 2개의 편지만이 남겨져 있다. Marguerite는 가톨릭교회 내에서의 개혁을 주장했으며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이 승리하는데 숨겨진 공로자로 알려져 있다. Blaisdell, "Calvin's Letters," p. 75.

14) 칼뱅은 Renee de France 와 Jean d' Albret가 칼뱅의 개혁을 따르는 목회자 Francois de Morel 사

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토론하지 않았으며, 그녀들이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위한 대리자로 지지자로서 정치적인 역할만을 칭송했다고 밝히면서 칼뱅이 의미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정치적인 영역에만 머물렀음을 비판하였다 (Blaisedell, 1982, 74, 84). 그리고 톰슨도 같은 입장에서 칼뱅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예외적인 여성으로 인정하지만 그것도 정치적인 측면만이 강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J. L Thompson, 1988). 톰슨은 이러한 측면에서 칼뱅에게 예외적인 여성은 과거나 미래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16세기라는 시점에서 예외적인 여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칼뱅은 자신의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신학적인 토론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가 기독교강요를 통해서 중요한 본질적인 교리를 기록한 상태에서 편지에서 신학적인 내용을 다룰 필요성이 있었을까? 칼뱅의 편지는 대부분 사적인 편지이거나 목회보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칼뱅은 편지를 길게 쓰거나 자신의 교리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는 많지 않다. 칼뱅은 1552년 로잔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5명의 동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이 편지가 나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서 당신들을 쓰러뜨리는데 사용될까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Calvin, *Letter of John Calvin*, 134). 이러한 맥락에서 칼뱅에 대한 입장을 교리와 정치적인 문제로 분리하여 여성지도력에 대한 문제를 교리적인 차원이 아닌 정치적인 영역에서 설정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하여도 16세기라는 시점을 고려한다면 가톨릭교회와 종교개혁자들이 여성의 대외적인 활동을 금하는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여성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당시의 시대에서 모형을 찾았다는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더글러스가 지적한 것처럼 비록 칼뱅이 여성의 지도력에 대한 언

이에 교회의 여성이면서 재산의 소유권자로 참석을 원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1564년 1월 21일 Renee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냈었다. Calvin to Renee, 8 Jan 1564 (CO 20.230~33, #4067; Bonnet, *Letters*, 4348~51.

급을 절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칼뱅에게는 매우 급진적인 여성변호자로서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칼뱅 이외에 어느 종교개혁자도 여성들이 교회에서 침묵하라는 바울의 입장을 합의에 의해서 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디아포라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Douglass, 1985, 106).

칼뱅은 여성들의 사치를 금하고 화장을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죄라고 해석하는[15]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당테레의 편지에 자신의 설교를 삽입함으로서 여성지도력을 긴급한 상황에서 인정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디아포라라는 개념이 긴급한 상황에서 여성의 지도력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여성의 지위나 지도력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었는가는 시험해보아야 할 것이다. 긴급한 상황이라는 예외적인 규정이 일반적으로 여성의 지도력을 허락하는 가능성을 위한 여지를 남겨놓느냐는 것이다. 물론 긴급한 상황이 융통성 있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칼뱅에게 있어서 긴급한 상황으로 설정된 여성지도력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성지도력에 대한 그의 입장은 일반적인 능력을 갖춘 여성에게는 여전히 소원한 문제라는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6. 나오는 말

칼뱅은 16세기라는 시점에 여성지도력을 아디아포라라는 그리스철학자들의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성이 교회에서 베일을 쓰고 침묵을 지키라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아디아포라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필자의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학자들이 이를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로 취급한 것과는 달리 칼뱅은 이 개념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15) 칼뱅에게 있어서 여성이 검소해야하는 것은 일관성을 지닌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감에 대해서 파렐(Guillaume Farel)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낭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John Calvin, *Letters of John Calvin*, 24.

개념이 아니며, 합의를 통해서 예외적인 긴급한 경우에 여성들에게 지도력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칼뱅은 1559년에서 1561년에 보수적인 남성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당테레가 마가리트에게 쓴 편지의 서문에 자신의 설교를 삽입하여 인쇄함으로서 그녀의 지도력을 인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칼뱅은 아디아포라의 표본으로서 여성 지도자를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찾음으로써 이 개념이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당시 파리의 상황은 휴거노트들을 대량 학살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급물살을 띠고 있었기에 실제로 예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이 틀림없다. 그뿐 아니라 엘리자베스 여왕의 신복 세실에게 보낸 두 번의 편지에서 그녀의 지도력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칼뱅에게 있어서 아디아포라의 개념은 남녀의 평등과 여성지도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상충되는 개념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도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아디아포라는 합의를 통해서 도출된 관습을 임의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 예외적으로 관습을 넘어설 수 있음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칼뱅은 여성지도력을 긴급한 상황에 예외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여성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동시에 긴급한 상황으로 제한함으로써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여성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라는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그의 전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16세기라는 시점에서 칼뱅이 제시한 여성지도력에 대한 인정이 현대적 시각에서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지만, 칼뱅에게 있어서 아디아포라의 영역에 속하는 여성지도력은 개념적이거나 이상적인 영역이 아니라 현실성을 띤 것임을 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 도움 받은 글

1차 자료

Calvin, John,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59 vols. Ed. G. Baum, E. Gunitz, and E. Reuss. Vols. 29–87 of *Corpus Reformation*. Brunswick and Berlin: Schwetschke, 1863–1900. Reprint, New York: Johnson Reprints, 1964.

_____, *Letters of John Calvin* 전 2권 (Jules Bonnet 엮음) (New York: Lenox Hill, 1972)[1858].

_____, "Preface to a sermon" in *Epistle to Marguerite De Navarre* by Marie Dentiere (Mary B. McKinley 옮김)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_____,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Ford Lewis Battles 옮김/John T. McNeill 엮음)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Christine de Pizan (1365~1431). *The Book of the City of Ladies* (Earl Jeffrey Richards 옮김/Marina Warner 머리말) (New York: Persea Books, 1982).

Dentiere, Marie. *Epistle to Marguerite De Navarre* (Mary B. McKinley 옮김)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2차 자료

Bieler, Andre, *L'Homme et la femme dans la morale calviniste* (Geneve: Labor et Fides, 1963).

Blaisdell, Charmarie Jenkins, "The Matrix of Reform: Women in the Lutheran and Calvinist Movements," Richard Greaves(엮음), *Triumph over Silence: Women in Protestant History*, 13~44. (Contributions to the Study of Religion, 15호.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1985).

_____, "Calvin's Letters to Women: The Counting of Ladies in High Places," Sixteenth *Century Journal*, 13권 3호 (1982년).

_____, "Religion, Gender, and Class: Nuns and Authority in Early Modern France," Michael Wolfe(엮음), *Changing Identities in Early Modern Franc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9).

Bowen, David Anderson, "John Calvin's Ecclesiological adiaphorism: Distinguishing the 'Indifferent,' and 'Essential,' and the 'Important,' His Thought and Practice, 1547~1559"(Ph.D. Dissertation, Vanderbilt University, 1985).

Davis, Natalie Zemon. "City Women and Religious Change," *Society and Culture in Early Modern Franc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5).

DeBoer, Willis P. Calvin on the Role of Women," David E. Holwerda(엮음), *Exploring the Heritage of John Calvin* (Grand Rapids: Baker, 1976).

Diefendorf, Barbara B., *Beneath the Cross: Catholics and Huguenots in Sixteenth-Century Pari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Douglass, Jane Dempsey, "Marie Dentiere's Use of Scripture in Her Theology of History," Mark Burrows/Paul Rorem(엮음), *Biblical Hermeneutics in Historical Perspective: Studies in honor of Karlfried Froehlich on his Sixtieth Birthday*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91).

_____., *Women, Freedom, and Calvi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5).
Green, Lswell, "The Education of Women in the Reformation." *History of Educational Quarterly*, 19권 1 (1979년).
Head, Thomas. "Marie Dentiere: A Propagandist for the Reform." Katharina M. Wilson(엮음), *Women Writers of the Renaissance and Reformation*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1987).
Hunt, Alan. *Governance of the Consuming Passion*: A History of Sumptuary Law (New York: Martin's Press, 1996).
Mancha, Rita, "The Women's Authority: Calvin to Edwards." *The Journal of Christian Reconstruction*, 6권 2호 (1979~1980년).
Potter, Mary, "Gender Equality and Gender Hierarchy in Calvin's Theology," *Signs* 2권(1986년).
Roper, Lyndal, *The Holy Household: Women and Morals in Reformation Augusburg*. (Oxford: Clarendon Press, 1989).
Street, Thomas Watson, "John Calvin on Adiaphora: An Exposition and Appraisal of his Theory and Practice" (Ph.D. Dissertation, Union Theological Seminary, New York, 1954).
Thompson, John Lee, *John Calvin and the Daughters of Sarah: Women in Regular and Exceptional Roles in the Exegesis of Calvin, His predecessors, and His Contemporaries*(Geneva: Librairie Droz S.A., 1992).
_____, "Creata and imaginem Dei, licet secundo gradu: Woman as the Image of God according to John Calvin," *Harvard Theological Review*, 81권(1988년).
Wallace, Ronald S.,*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Edinburgh: Oliver and Boyd, 1959).

검색어 칼뱅, 아디아포라(adiaphora), 여성지도력, 당테르, 16세기, 엘리자베스 여왕1세 종교개혁, 휴거노트

투고일/심사일/게재확정일 2009.08.04 / 2009.08.14 / 2009.09.09

Calvin's Perspective on Women's Leadership and Adiaphora

Pilleun Lee-Park, Ph.d.

Full-time lecturer, Dept. of Christian Education, Korean Nazarene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how Calvin explains women's leadership during the 16thcentury. Many scholars have attempted to explain Calvin's contradicting dualistic understanding of women's leadership. He emphasizes woman's spiritual equality with man and also emphasizes that woman should submit her husband because God has established the hierarchical orders in this temporal world. Calvin employs sophist's philosophical concept, adiaphora, in order to solve his paradoxical view of women's leadership. Bowen elucidates that Calvin uses adiaphora which allows free decision because its sphere is related with nonessential cultural diversity. However, I argue that adiaphora signifies the external regulations which allow the exceptional freedom at the critical emergency even though adiaphora is not exactly the same matter of essential and fundamental doctrine for salvation.

Some scholars criticize Calvin' s using of adiaphora as an epistemological issue because he mentions women' s excellent leadership only in Greek or biblical women. However, Calvin illustrates the example of women' s leadership, such as Marie Dentiere and Queen Elizabeth of his contemporary time after 1559. Faced with the critical danger to Huguenot, Calvin inserts his sermon into the Dentiere' s letter to Marguerite of Navarre. Also, he sent two letters to Cecil for the purpose of correcting Queen Elizabeth' s misunderstanding about him. Calvin might regard the dangerous situation of Huguenot as the exceptional emergency, and Dentiere' s letters would support the Huguenot. Furthermore, Queen Elizabeth could help them. Even though adiaphora has limitations in improving the women' s leadership because he admits the women' s leadership only in the situation of emergency, it is valuable to reconsider his view on women. Adiaphorais not the epistemological issue but the practical issue to Calvin.

Even though the purpose of Calvin' s writing after 1559 is not entirely clear to us, enough is known to be able to say that Calvin might concern Huguenot. In threatening massacre of Huguenot, Calvin would console them and firmly stand them. By analyzing Calvin' s letters and commentaries, this research draws this conclusion.

Key Words Calvin, adiaphora, women' s leadership, indifference, Dentiere, 16th century, Queen Elizabeth, reformation, Huguenot